

배포일시	2019. 7. 19.(금) 12:30 (총 3매)	보도시점	즉 시
담당부서	관측예보과	담당자	과장 김회철 사무관 신건명
		전화번호	063-249-3245

제5호 태풍 '다나스' 현황과 전망

- 제5호 태풍 '다나스' 북상, 19일(금)~20일(토) 한반도 영향
 ※ 전라북도 내일까지 50~150mm 많은 비와 강한 바람



제5호 태풍 다나스 예상 경로 및 주변 기압계 모식도

[태풍 현황]

- 현재(19일 09시) 제5호 태풍 '다나스'는 중국(상하이) 남동쪽 약 35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28km의 속도로 북진하고 있습니다. 이 태풍의 현재 중심기압은 990hPa, 크기는 소형이며, 최대풍속은 시속 86km(초속 24m)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

[태풍 경로와 강수 전망]

- 태풍 '다나스'는 점차 우리나라로 북상하여 19일 오후 제주도 남서쪽해상으로 진입하여, 20일 새벽 제주도서쪽해상을 지나, 아침에 전남해안에 상륙하겠습니다. 이후 남부지방을 지나 경북 내륙을 거쳐 동해상으로 빠져나가 20일 밤 동해상에서 열대저압부(TD)로 약화될 것입니다.
- 앞으로 태풍이 점차 우리나라로 북상함에 따라 현재(19일 10시)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비 구름대는 오후(15~18시)부터 더욱 강하게 발달하겠고, 20일 오전(09~12시)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것입니다.
- 전라북도는 오늘 오후(12시~18시)에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으나, 오늘 밤부터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오겠고, 내일까지 태풍의 영향으로 50~1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.
- 특히, 20일 오전(09~12시)부터 전북 남부·동부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니, 산사태, 침수 등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이후 21일 새벽(00~03시)부터 서쪽지방을 시작으로 오전(03~06시)에 전북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가 그치겠습니다.

※ 예상 강수량(19일부터 20일 밤(24시)까지)

- 전라북도: 50~150mm

[태풍 특징 및 유의사항]

- 이번 태풍은 오늘(19일) 새벽까지 바닷물의 온도가 29도 이상의 높은 구역을 통과하면서 발달하였으나, 오후부터 26도 이하의 구역으로 북상하면서 세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그러나 태풍이 남쪽의 뜨거운 수증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19일(금)~20일(토)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.
- 또한, 20일까지 서해남부해상에는 물결이 최고 5m 이상 매우 높게 일면서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고, 해안가 저지대는 해수 범람이 우려되니,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피해, 저지대 침수 등에 유의하기 바랍니다.

[태풍 변동성]

- 태풍이 우리나라에 상륙 후, 빠르게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, 이동속도가 다소 느려질 경우 강수 지속시간이 길어져 강수량이 늘어날 수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정보와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.

[향후 장마 및 강수 전망(29일 까지)]

- 태풍이 통과한 뒤, 장마전선은 약해져 21일부터 장마는 일시 소강상태에 들겠습니다. 이후 24일(수) 경 북서쪽으로부터 다시 발달하는 장마전선이 접근하면서 전라북도는 24일(수)과 26일(금)에 장맛비가 오겠습니다.